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 및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eisure Facilities Preference and Leisure Part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New-generation Married Wome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李貞珩
조지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李潤美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eong Woo Lee

Dept. of Child and Family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Georgia

Graduate Student of Doctorial Program : Youn Mi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eisure facilities preferences and leisure activities of new-generation married women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amples was composed of 195 married women under 35 years old, selected by age and local distribu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ew-generation wives preferred culture · intellectual general arts facilities to sport facilities and participated in home-oriented activities. The more new-generation married women participated in active leisure, the higher level they showed in life satisfaction. There is no significant affect of leisure facilities preference on life satisfaction.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sample were the most significant to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the policies on leisure facilities and leisure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the new-generation wives, such as establishing community leisure facilities which can help

the mother as well as young children enjoy their leisure activities with less expense, and managing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in which the new-generation wives easily participate with their families.

I. 서론

1970년대 이후 시기를 주요 성장기로 보낸 현재의 신세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로 이들의 여가문화는 주로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하며,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효율성·합리성과 같은 경제적 규범보다는 자유·사는 보람·여유 등을 더 가치있게 여긴다. 그러므로 신세대는 일보다 여가를 중요시 여기며,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표현·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신세대에 해당하는 35세 이하의 기혼여성은 자신을 결혼 후 더 이상 신세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경향신문, 1996.1.4)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 중 대부분은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여가활동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세대 여가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세대 기혼여성은 여가를 중시하며 소비적인 여가문화를 주도하는 신세대의 특징을 지님과 동시에 자녀양육·가사부담이 가장 큰 가정확대기의 가정관리자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생활을 파악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양질의 여가시설환경은 여가욕구를 만족시키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참여를 유도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다가올 여가개성화 시대를 예견한다면, 여가시설은 여가욕구를 지닌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국가적 및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여가시설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은 기본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탁아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사회는 여가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가시설은 도시기혼 여성의 여가욕구충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나 이윤추구를 위한 획일적인 여가시설을 공급하고 있어 소비지향적 여가활동을 자극·확산하는 속성을 지닌다(김외숙, 1991).

선호하는 여가시설은 여가활동참여 영역을 예측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며, 여가활동은 그 자체로써 심신의 건강과 자아실현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의 질을 예시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신세대 기혼 여성의 여가활동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deem, 1987), 자아실현을 통해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여가생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부인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 및 여가활동참여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세대의 건전한 여가의식 형성과 바람직한 여가시설 선택 및 여가선용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나아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고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를 국민복지 차원으로 전환시켜, 이들의 잠재력과 유희능력을 여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세대 여가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과, 사회적 상황 및 공동경험의 공유를 중시하는 경험모형(experiential model)으로 나뉘어진다(한국 사회학회, 1990). 한국의 경우는 생애주기와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조응한다는 견지에서 어떤 방

법을 선택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신세대란 전쟁후에 출생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려왔고, 출산을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에서 사회화되었으며, 정치·경제·문화 각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연령상으로는 35세 이하, 역사적 사건상으로 볼 때,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다(권미화, 1994). 신세대는 비교적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강한 개성을 지녔으며, 진취적·도전적·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으며(경향신문, 1996.1.4), 이 밖에도 이기적·개인적이고, 자유분방하며,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한국일보, 1994.9.22), 신세대의 이와 같은 특징은 여가생활에도 반영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일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시」하며(한국일보 1994.9.22·경향신문 1995.3.2), 「일보다는 여가를 더 중시」(조선일보, 1997.11.14; 조선일보, 1996.11.14; 한겨레신문, 1996.7.21; 한국일보, 1994.9.22) 하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는 쉽고, 편리한 직업,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양적 삶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질적 삶을 중시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이다(한국일보사, 1990).

둘째, 신세대의 여가생활에 대한 지출비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국민일보, 1995. 5.22), 또한 여가생활의 장애물로 「금전문제」보다는 「시간부족」을 들었다(서울신문, 1993.7.28). 이는 신세대가 국민생활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진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레저문화의 고급화로 여가를 즐기는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막내자녀 연령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김의숙, 1991)를 보면, 막내자녀의 연령이 5세 이하인 집단의 여가활동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의 여가활동은 육아문제로 인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제한되어 있었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5세 이하인 집단은 35세 이하의 신세대 기혼여성집단과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신세대 여가 조사결과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로서의 특성과 가정

의 관리자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35세 이하의 신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여가생활과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여가시설 및 여가시설선호

여가시설이란 공간에 비해 자본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인위성이 큰 여가공급부문으로 여가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편익시설과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도시내 또는 도시근교에 집중되는 이용자중심형의 성격을 띤다(한국관광공사, 1985). 또한 여가시설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휴식·기분전환·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특징을 지닌다(김광득, 1993).

한편, 개인의 학습과 사회화의 산물인 여가선호(Kleiber와 Durkin, 1985)는 개개인의 여러 활동에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평가할 때 고려된다(홍성희, 1991). 개개인은 자신의 여가목표·양식·습관을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Iso-Ahola 와 Mannell, 1985) 여가선호는 사회적 맥락에서 외부적인 행동과 관련된다. 따라서 여가선호는 여가시설의 대체적인 범주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여가시설은 여가활동을 유도하는 대상이 된다.

여가시설환경과 여가만족은 유의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가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긍정적이며 만족스런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가시설 제공자로서는 관심의 대상을 여가시설의 양과 이용자의 숫자가 아닌 이용자 개인의 만족정도에 두는 인간중심의 여가관리를 해야 한다(Torkildson, 1992). 그럼으로써 여가시설 이용자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나아가 적극적 여가활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소비자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가산업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여가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권미화, 1994). 즉,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는 여가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소극적 공급영역은 그나마 홍보가 미비하여 소수가 이용할 뿐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그때그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가시설을 공급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확실적인 여가활동을 유도할 뿐 아니라 물질지향적·소비지향적인 여가활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신세대의 고감각 상품을 소비하는 복합소비·소모성 소비생활과 부합되어 소비중심의 여가시설 선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신세대 부부의 여가생활을 위한 지출증가율이 20%에 이르러 중년기 1.6%, 노년기 4.2%에 비해 월등 높고, 연간 휴가비 지출도 다른 세대의 두 배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국민일보, 1995.5.22)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가관련 연구와 신세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권미화, 1994)는 있으나, 가정과 여가를 중시하는 신세대의 특징에 부합되는 신세대 기혼자의 여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의 바람직한 여가생활과 그에 따른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신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여가시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도

신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가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즉, 35세 이하의 기혼여성 또는 막내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저학년 아동일 경우를 기준으로 여가활동참여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므로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임정빈·임혜경, 1992; 한경미·황덕순, 1990; Hill, 198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도는 전체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참여도는 활동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의 참여가 낮고, 가정지향적 활동 또는 자녀중심적 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외숙, 1991; 홍성희, 1991). 반면, 신세대 주부는 기성세대에 비해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며(61%, 48%)(경향신문, 1993.4.6), 영역별로는 교제를 위한 사교적 활동이나 휴식·오락을 위한 활동, 소극적 활동은 40대 이

상의 기혼여성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신세대 기혼여성의 연령층은 적극적인 자기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것(박남숙, 1990; 백주현, 1989; 이현주, 1985)으로 나타나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막내자녀의 연령인 것을 알 수 있다. Nickols 등(1983)은 주부의 여가시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소득이나 사회계층 등 경제적인 척도보다 가사노동자로서, 또는 가족적 역할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여가를 가족의 여가로 인식하고 있고(Hantrais, 1985; Glyptis와 Chambers, 1982), 가족원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의식(ethic of car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위한 장소로 가정을 이용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활동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그 활동이 새로운 수가 없으며(Deem, 1982), 더욱이 가정지향 여가활동은 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Wimbush와 Talbot, 1988).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가정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여가를 선택 할 수 없으며(Deem, 1987), 가족원에 대한 책임의식은 여성의 여가 참여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선택한 활동의 향유를 제한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Iso-Ahola와 Mannell, 1985).

여가경험은 자아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독자성을 표현하는 생활영역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Kelly, 1983),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업주부에게는 여가를 통해 '자신의 일'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취업주부에게는 '자유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여성 개인의 취약한 영역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기여하게 된다.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을 살펴보면, 이현주(1985)는 교제활동·자기개발활동·건강유지활동·종교 및 사회참여활동·휴식 및 오락활동의 5가지 여가유형에 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Kelly, Steinkamp 와 Kelly(1987)의 연구에서는 문화활동·사회활동·여행 등이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백주현(1989), 홍성희(1991)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개발적 활동·가정 지향적 활동·사교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시간소일적 여가활동 및 자녀중심적 여가활동참여는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이고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이 아닌 여가활동참여는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원(1993)의 연구에서도 휴양적 활동이나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활만족도가 낮은 반면, 취미·교양활동이나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 그들의 여가활동참여에의 장애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적극적이고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여가관련 요인에 관한 고찰

(1) 여가활동유형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부의 동료의식이 강조되며 부부의 공동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가의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다(전명숙, 1985). 따라서 부부간의 여가가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도리어 갈등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최신태, 1979), 부부관계와 부부의 여가활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yder(1979)는 배우자와 함께 한 여가시간의 질과 양은 전체적인 부부만족도를 높게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Hill(1988)도 배우자와의 공동시간의 양과 결혼안정성과는 정적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레크레이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였다(Locke, 1974). 모든 여가유형이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를 중심으로 여가행위의 유형을 볼 때 혼자형,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joint형,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parallel형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joint형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긍정적이며, 혼자형의 결혼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parallel형은 약간 긍정적이지만 그 중간으로 나타났다(Orthner, 1975). Holman과 Jacquart(1988)는 부부의 여가활동유형을 개별참여형, 낮은 공동 참여형, 중간정도의 참여형, 높은 공동 참여형 형태로 구분하여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개별참여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높은 공동 참여 형태에서는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 공동의 여가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관한 시간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동선(1982)과 김경숙(1986)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와 30대의 주부가 남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을 중시하는 신세대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와 가정을 중시하는 신세대 기혼여성이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가의 문제는 그들의 여가시설과 활동의 선택 및 생활만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형태의 여가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혼자서」, 「남편과 함께」, 「친구·친척·이웃과 함께」로 구분하여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을 살펴보았다.

(2) 여가의식

여가에 대한 현대 사회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엔 사람들의 생활에서 여가의 역할, 곧 그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과 여가의 가치에 대해서는 3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째, 노동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보고 여가를 종속된 것 또는 수단으로 보는 태도이며, 둘째는 그와 반대로 여가를 인생의 목적으로 보고 노동을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보는 태도이고, 셋째는 노동과 여가를 상호 보완적 대등치로 보는 태도이다(김은한, 1986). 경제 발전에 관심을 두었던 우리나라는 여가보다는 일 중심에 더 가치를 두었으나, 연령이 적을

수록, 즉 신세대에 이르러 여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단조로운 노동의 반복 등으로 인해 일로부터 얻는 피로와 긴장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여가를 통한 휴식과 회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휴식의 중요성만을 인정하고 여가를 생활의 잔여시간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발전적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취적인 여가태도로 보기 어렵다(안중운, 1989). 따라서 여가를 통해 일상적인 사고나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로써 개인적·사회적 측면의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는 「학습의 기회」, 「성장과 표현을 위한 자유」, 「인생의 재발견을 위한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Lee, 1964).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 의식을 고찰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여가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현재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여가의식이 실제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여가제약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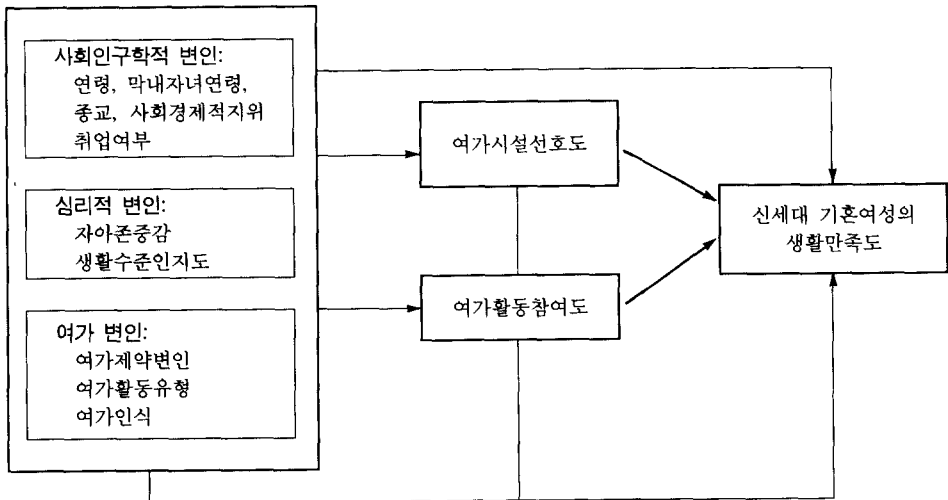
김정연(1991)의 연구에서는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시간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공간의 부족과 비용부담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여가생활의 장애물로 「금전문제」보다는 「시간부족」을 들었다(서울신문 1993.7.28). 김외숙 외(1993)는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을 비용장애라고 하여, 여가비 지출이 다양한 여가활동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였고 하였다. 한편, Henderson(1990)은 여성의 여가가 가정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어지는 여가기회의 부족 때문이라면서, 탁아시설과 같은 시설 서비스와 융통성 있는 시간변동으로 여성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술·흥미의 부족과 같은 내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금전·시간부족의 물질적 요인과 여가시설·동참자 부족 등의 외적 요인이 여가활동참여에 장애가 될 수 있다(Jackson,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의 여가제약변인을 여가비용·여가시간·여가공간으로 제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여가변인)은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택도·여가활동참여도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택도와 여가활동참여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택도와 여가활동참여도는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 여가시설선택도 및 여가활동참여도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3. 조사도구 선정

(1) 여가시설선택도

권미화(1994)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에서 .82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여가활동참여도

이현주(1985), 김의숙(1991)과 진영아(1995)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각 문항별로 5점 또는 6점 척도로 여가활동참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빈도를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활동에 따라 참여정도가 크게 달라져 활동별로 어느 한 쪽으로 편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할 때는 8점 척도로, 관련변수별 분석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시켜 분석하였다(김의숙, 1991).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71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Deacon과 Firebaugh(1981)가 개발한 측정방법을 사용한 조혜정(1994)의 연구와 Diener·Enmonson·Larson·Griffith(1985)가 개발한 측정방

법을 사용한 진봉국(1993)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92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4.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5세 이하의 신세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령과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자기기재식 방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 중 195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Chronbach's α ,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회귀분석 등을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다음 <표 1>과 같다.

2. 배경변인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택도·여가활동참여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배경변인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택도에 미치는 영향

신세대 기혼여성은 일반적으로 운동시설(2.94점/5점 만점)보다는 문화·교양시설(3.58점/5점 만점)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권미화(199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35세 이하의 신세대 층에서는 미혼과 기혼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활동을 위한 여가시설을 선호하기보다는 지적육구의 충족과 문화적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가를 위한 운동시설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운동시설 수요에 비해 운동시설공급이 부족하므로, 이용하기가 보다 쉬운 문화·교양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어린 자녀가 있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운동시설기관에 이용자를 위해 부설 운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연령	30세 이하	30 (13.7)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종교	기독교·천주교	104 (53.6)
		31세~35세	165 (84.6)			불교	28 (14.4)
심리적 변인	막내자녀 연령	무자녀	10 (5.2)	심리적 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상	64 (36.3)
		1세~3세	65 (33.5)			중	65 (36.3)
		4세~6세	78 (40.2)			하	49 (27.4)
		7세~8세	41 (21.1)				
여 가 변 인	자아 존중감	상	72 (37.9)	여 가 변 인	생활수준 인지도	상	39 (20.1)
		중	59 (31.1)			중	111 (57.2)
		하	59 (31.1)			하	44 (22.7)
여 가 변 인	여가시간	3시간 미만	60 (31.7)	여 가 변 인	여가활동 유형	혼자서	78 (40.0)
		3 이상~5 미만	95 (50.3)			남편과	99 (50.8)
		5 이상~7 미만	28 (14.8)			친척·친구·이웃과	18 (9.2)
		7시간 이상	5 (3.1)				
	여가비용	상	35 (21.7)		여가인식	상	56 (29.5)
		중	83 (51.6)			중	79 (41.6)
여가공간	하	43 (26.7)		하	55 (28.9)		
	상	39 (21.7)					
	중	103 (57.2)					
	하	38 (21.1)					

사회경제적지위 : 남편과 부인의 학력, 월수입, 남편의 직업을 기초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M+1/2SD이상), 중(M+1/2SD-M-1/2SD), 하(M-1/2SD이하)로 분류.

하는 탁아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자녀를 시설에 맡겨놓고 자신의 여가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가족원 우선의 가치관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운동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자녀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교양 시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 선호는 〈표 2〉와 같다. 운동시설 선호 영역에서는 연령($\beta = -.26$)이, 문화·교양시설 선호 영역에서는 여가활동 유형($\beta = -.20$)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30세 이하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운동시설을 선호하며, 「혼자서」하는 여가활동유형일 때, 문화·교양시설을 선호하였다. 혼자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파트너가 필요한 운동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양시설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참여도의 일반적 경향을 8점 만점으로 하여 살펴보면, 신세대 기혼여성은 가정지향활동(4.30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일활동(4.06점), 기분전환활동(4.05점), 자기개발·종교활동(2.56점), 교제·문화활동(2.48점)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이윤미(1997)의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이정우(1997)의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소일활동영역에 가장 많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교제활동, 자기개발활동영역에서도 신세대보다 더욱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신세대 기혼여성은 중·노년기에 비하여 절대적인 여가시간도 부족하지만,

〈표 2〉 배경변인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택도·여가활동참여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시설선택도						여가활동참여도						생활만족도					
	운동시설 선택도		문화·교양 시설선택도		전 체		가정지향 활동		기본전환 활동		자기개발· 종교활동				교제·문화 활동		소일활동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막내자녀연령																		
종교																		
자아존중감																		
생활수준인지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공간																		
여가활동유형																		
상수항	4.37		4.18		4.49		3.53			1.81		.51		2.89		1.31		
R ²	.069		.040		.065		.037			.240		.238		.033		.365		
F	10.14**		5.64*		4.71*		5.30*			14.18***		8.33***		4.67*		19.25***		

*P<.05, **P<.01, ***P<.001

자녀양육위주의 가정지향적인 활동으로 여가의 범위가 제한되어, 적극적인 활동의 참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0세 이상의 주부가 30세 이하의 주부보다 교제를 위한 적극적 여가활동을 한다고 보고한 이현주(1987)의 연구 및 주부와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개발적 여가활동과 사교적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증가하며 주부와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중심적 활동참여도가 증가한다는 홍성희(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가정지향활동 참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막내자녀연령($\beta = .19$)으로,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정지향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7-8세 막내자녀의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자녀 취학 후 1-2년은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자녀를 가진 신세대 주부의 가정지향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전환활동 참여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개발·종교활동 참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beta = -.34$), 여가비용($\beta = .28$), 여가공간($\beta = .19$)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천주교 등의 종교를 가질 때,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공간이 많을수록 자기개발·종교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문화활동 참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가비용($\beta = .28$), 자아존중감($\beta = .23$), 여가활동유형($\beta = .21$), 여가공간($\beta = .19$), 생활수준인지도($\beta = .18$)로 나타났다. 즉,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혼자서」보다는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유형일 때, 여가공간이 많을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교제·문화활동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일활동 참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가시간($\beta = .18$)으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소일활동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여가활동참여 즉 자기개발·종교활동과 교제·문화활동참여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여가비용과 여가공간이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여가활동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여가시설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만한 여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3) 배경변인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39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42$), 생활수준인지도($\beta = .34$), 여가활동유형($\beta = .24$), 여가비용($\beta = .18$)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유형일 때,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가지 변인의 설명력은 36.5%이며, 제 1 영향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검증되었다.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는 객관적 요인보다 주관적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세대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의 경향을 살펴보면(〈표 1〉참조), 중·하의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신세대 기혼여성이 조사대상자 전체의 62.2%를 차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상 자녀의 출산과 육아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시기이며, 출산과 육아문제는 신세대 주부의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국민

일보, 1995.5.22), 자연히 이 시기의 주부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신을 위한 투자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상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유형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나, 본 연구의 경우 가정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특징이 반영되어 중년기 또는 노년기(이정우, 1997; 이정우·이윤미, 1997)보다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유형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표 1〉참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도와 여가활동참여도와의 관계

운동시설선호도는 자기개발·종교활동($r = .24$), 가정지향활동($r = .17$), 교제·문화활동($r = .12$) 참여도의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운동시설을 선호할수록 이들 여가활동영역에서의 참여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문화·교양시설선호도는 소일활동을 제외한 4영역, 즉 가정지향활동($r = .30$), 자기개발·종교활동($r = .24$), 교제·문화활동($r = .22$), 기분전환활동($r = .21$)의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문화·교양시설을 선호할수록 이들 영역에서의 참여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참여도와 여가시설선호도의 관계에서 소일활동영역과 자기개발·종교활동영역을 대조해 볼 수

〈표 3〉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와 여가활동참여도의 관계

		여가활동참여도				
		가정지향활동	기분전환활동	자기개발·종교활동	교제·문화활동	소일활동
여가 시설 선호 도	운동시설선호	.1689*	.0669	.2361***	.1229*	.0895
	문화·교양시설선호	.2954***	.2120***	.2365***	.2241***	.1004
	전 체	.2707***	.1636*	.2740***	.2035**	.1096

* $P < .05$, ** $P < .01$, *** $P < .001$

있다. 즉, 소일활동은 여가시설선호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자기개발·종교활동은 운동시설 선호와 문화·교양시설 모두에서 다른 활동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가시설은 여가활동유형의 대체적인 범주를 결정하는 인자로서의 기능(권미화,1994)을 하므로, 여가시설에 대한 무관심은 가정 내에서의 시간소비적 여가활동으로 이어지며, 여가시설에 대한 선호와 관심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가시설 선호도와 여가활동참여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결과로 보아, 여가시설에 대한 선호는 여가활동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 및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4〉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시설선호 및 여가활동참여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영역	생활만족도		
		b	β	
여가시설선호	운동시설선호	-.03	-.05	상수항 3.10 $R^2 = .019$ $F = 1.88$
	문화·교양시설선호	.10	.16	
여가활동참여도	가정지향활동	.17	.14	상수항 1.72 $R^2 = .188$ $F = 8.73^{***}$
	기분전환활동	-.02	-.03	
	자기개발·종교활동	.11	.17*	
	교제·문화활동	.28	.29***	
	소일활동	.04	.06	

* $P < .05$, ** $P < .01$, *** $P < .001$

여가시설선호는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중 교제·문화활동($\beta = .29$), 자기개발·종교활동($\beta = .17$)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제·문화활동, 자기개발·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두 참여영역의 설

명력은 18.8%이며, 교제·문화활동이 제 1 영향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자아를 개발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이정우, 1997; 이정우·이윤미, 1997; 이종길, 1991; 김희숙, 1991; 홍성희, 1991; 한경미·황덕순, 1990; 백주현, 1989; 이현주, 1985)이 본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42$), 생활수준인지도($\beta = .35$), 여가활동유형($\beta = .26$), 여가비용($\beta = .14$), 소일활동($\beta = .14$), 자기개발·종교활동($\beta = .14$)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남편과 함께」의 여가활동유형일 때,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소일활동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기개발·종교활동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6변인의 설명력은 40.3%이며 자아존중감이 제 1 영향변인이었다.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는 객관적 요인보

〈표 5〉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

변인	생활만족도		
	b	β	
자아긍정감	.31	.42***	상수항 .80 $R^2 = .403$ $F = 14.87^{***}$
생활수준인지도	.32	.35***	
여가비용	.13	.14*	
여가활동유형	.32	.26***	
소일활동	.10	.14*	
자기개발·종교활동	.10	.14*	

* $P < .05$, ** $P < .01$, *** $P < .001$

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감과 자신의 생활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심리적 변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수입·자산과 같은 경제적요인 및 학력과 같은 사회적요인에 의해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결과(이정우,1997)를 토대로 소비를 주도하는 특성을 가진 신세대 기혼여성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신세대 기혼여성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활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심리적 변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여가활동참여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표4참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개발·종교활동과 교제·문화활동이었으나, 배경변인과 여가시설선호도, 여가활동참여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표5참조) 소일활동과 자기개발·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소일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것이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94.9%가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사노동과 집중적인 양육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긴장을 풀고 여유로운 시간을 소일활동으로 보내는 것은 자기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한 만족감과 다른 느낌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신세대 기혼여성의 육아의무와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정신적 부담감과 육체적 피곤함을 알 수 있다.

6.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심리적 변인, 여가변인, 여가시설선호 및 여가활동참여

〈표 6〉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 여가시설선호도 및 여가활동참여도의 상대적 기여도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연령	-.09	-.06	-.22	-.13*	-.32	-.19*
막내자녀연령	.00	.00	.01	.02	.02	.03
종교	-.01	-.02	.01	.01	.03	.04
사회경제적 지위	.01	.01	.11	.14	.12	.16*
자아존중감	.25	.36***	.30	.41***	.29	.38***
생활수준인지도	.26	.29***	.29	.31***	.28	.30**
여가시간			.06	.08	.00	.00
여가비용			.15	.17**	.11	.13
여가공간			-.08	-.09	-.11	-.13
여가활동유형			.32	.26***	.31	.25**
여가인식			.07	.09	.09	.11
운동시설선호					-.04	-.07
문화·교양활동선호					-.00	-.00
가정지향활동					.15	.11
기분전환활동					-.03	-.04
자기개발·종교활동					.11	.16*
교제·문화활동					.06	.06
소일활동					.10	.15*
상수항		2.53		1.40		.71
F		9.55***		8.11***		6.03***
R ²		.255		.413		.475
R ² 증가량				.158		.065
D-W test		1.81		1.89		2.00

*P<.05, **P<.01, ***P<.001

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1단계는 사회·심리적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여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여가시설선택도와 여가활동참여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사회·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설명력이 2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1.3%로 1단계에 비하여 15.8%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시설선택도와 여가활동참여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7.5%로 6.5% 증가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 41.3%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심리적변인과 여가변인이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어, 신세대 기혼여성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생활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기준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단계와 2단계에서 생활수준인지도와 여가비용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가생활을 중시하며 소비를 주도하는 신세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유형이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신세대의 부부중심 여가생활은 중·노년기에 이르러 겪는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또한 이러한 부부중심의 여가생활은 건전한 개인적·가족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은 가정지향활

동, 소일활동, 기분전환활동의 소극적활동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적극적활동의 참여도는 이들 소극적활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신세대의 연령대에 속해 있기는 하나, 가정생활주기상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혼여성은 여가활동을 할 때 가족의 의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죄책감에 의해 장애를 받는다는(Henderson, 1991) 보고에서 지적하듯이, 특히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두고 적극적인 여가를 위해 가정 밖의 활동을 도모하는 것은 다른 객관적 장애요인보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심리적 장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세대 기혼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가시설 내에 있는 탁아시설로써,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주부들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동시에 자녀들은 또래집단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익히며 새로운 놀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탁아시설이 이미 자녀양육의 경험을 가진 중년기 기혼여성과 아동전공자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중년기 여성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공자에게는 자신의 학문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중년기 여성의 여가를 유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신세대 기혼여성은 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적극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또한 봉사활동의 도움을 받은 신세대 기혼여성이 중년기 이후의 세대가 되어 다시 이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유희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는 학습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신세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에는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었다. 이는 신세대 기혼여성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물질중심의 사고방식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주관적이며 정신적인 가치를 더 의미있게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세대에 이르러서는 기성세대의 획일적이며 물질위주의 과시적인 여가생활에서 탈피하여 건전하며 정신적인 만족추구를 위한 개

인적인 여가활동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신세대는 부부중심의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또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중심,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이 자신들만을 위한 소비적 여가활동이 아니라 건전하며 이타적인 여가활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주부가 가족원의 중심으로써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부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생활과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문미, 1985)는 연구를 미루어 볼 때, 남편·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오락과 놀이문화 위주의 상업성 가족여가(세계일보, 1994.6.14)로부터 건강한 가족여가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그 특성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위주의 여가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적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회관, 학교등의 지역사회의 노력이 우선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가장 운영이 용이한 곳은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특정계층의 주부를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기관은 광범위한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의 여가생활을 이끌어줌으로써, 바람직한 여가생활의 개념을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단기 코스와 장기 코스를 분리하여 이용자의 특성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기업운영의 시설이용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학 자체로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대학자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부 자신의 태도이다. 본 연구의 결과, 신세대 기혼여성은 가정지향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나, 가정

지향활동이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세대 기혼여성은 가정에서의 일을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에게 있어 자녀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의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육과 가사일을 자신의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일을 여가화(백은순, 1992)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신세대 주부는 자신의 일 없다는 자아상실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의미를 찾고, 변화를 추구하여 자아에 대한 향상된 긍정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주부의 자아형성을 통한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 매스컴과 지역사회의 교육을 통해 주부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주부의 가치관과 태도가 사회에 얼마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하여, 주부 스스로가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지닌 가정의 정착을 위한 관련분야 전공자들의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노력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권미화(1994), "미혼신세대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여가활동과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숙(1986), "중년여성의 여가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관동대 논문집(자연·예체능계), 관동대논문집.
- 3) 김광득(1988), "한국의 여가시설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4) 김문경(1991), "한국인의 여가문화",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5) 김문미(1986), "자원봉사활동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6) 김영주(1992), "한국 근로자의 바람직한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8) 김은한(1986), "한국인의 여가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9) 박남숙(1990),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 생활스타일과의 관계",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10) 백은순(1992), "성인기의 여가특성과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11) 백주현(1990), "여가선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2) 안동선(1982), "한국도시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3) 안종윤(1989), "여가와 여가정책", 관광연구논총, 제 1집, 한양대 관광연구소.
- 14) 안희경(1991), "도시주부의 여가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우(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 16) 이정우 · 이윤미(1997), "중 · 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17) 이현주(1986), "주부의 여가활용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이후원(1993), "여가활동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9) 임정빈 ·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 20) 전명숙(1986), "중년기 가정의 부부생활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조혜정(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접근",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2) 진봉국(1993),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3) 진영아(1995), "노인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 24) 한경미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25) 한국관광공사(1989), 현대여가문화정책, 서울: 한국관광공사.
- 26)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 27) 한국일보사(1990),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일보출판부.
- 28) 경향신문, 1993.4.6
- 29) 경향신문, 1995.3.2
- 30) 경향신문, 1996.1.4
- 31) 국민일보, 1995.5.22
- 32) 서울신문 1993.7.28
- 33) 조선일보, 1996.11.14
- 34) 조선일보, 1997.11.14
- 35) 한겨레신문 1996.7.21
- 36) 한국일보, 1994.9.22
- 37) Deem,R.(1982). "Women, Leisure, and Inequality", *Leisure Studies*, 1(1).
- 38) Glyptis,S. & D,Chambers(1982). "No Place Like Home", *Leisure Studies*, 1(3).
- 39) Hantrais, L.(1985). "Leisure Lifestyles and Techno Synchronization of Family Schedules: A Franco-British comparative perspective", *World Leisure and Recreation*, 27(2).
- 40) Henderson,K.(1990) "The Meaning of Leisure for Women: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3).
- 41) Henderson, K. & K.R. Allen(1991) "The Ethic of Care: Leisur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for Women", *Society and Leisure*, 14(1).
- 42) Hill, M.S.(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 43) Iso-Ahola,S.E. & R.C.Mannell,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Leisure", In M.G. Wade(Ed.),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IL: Charles C.Thomas.
- 44) Kelly,J,R(1983).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45) Kelly, J.R., M.W. Steinkamp & J.R. Kelly (1987). "Later-life satisfaction :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 46) Kleiber, D.A & G.R. Durkin, "Intrapersonal Constraints to Leisure", In M.G. Wade (Ed.),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47) Nickols, S.Y. & M. Abdel-Ghany (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48) Orthner, D.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
- 49) Snyder, D.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13-823, (Nov.)
- 50) Wimbush & Talbot (1988). *Relative Freedom*,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